

##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 4

### I. 서론

1-9장까지의 긴 서론이 끝나고 10장부터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시작된다. 10장 1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잠언이라”라는 제목부터 22장 16절까지가 잠언의 두 번째 섹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섹션에는 총 375개의 가르침이 있는데, 솔로몬(*שלמן*)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의미하는 숫자(300,30,40,5)로 계산하면 375가 된다.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고 하는데(왕상 4:32), 본 섹션에 기록된 잠언은 약 12.5%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섹션은 10:1-15:33과 16:1-22:16 두 파트로 구분된다. 첫 번째 파트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적인 가르침의 모음집이며,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연륜이 많은 사람이 얻은 ( )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다.

### II. 본문: 상반되는 지혜 모음집(10:1-15:33)

10장부터 15장까지의 지혜 모음집에는 대부분 의인(지혜로운 사람)과 ( )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되는 면을 부각시키는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락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주제와 다른 부분도 있다.

- A. 상반되는 가르침 모음집 시작(10:1-8)
- B. 선과 악에 대한 가르침(10:9-32)
- C. 선과 악에 대한 추가적 가르침(11:1-31)
- D. 혼욕과 지혜 사랑(12:1-28)
- E. 지혜로운 조언 경청(13:1-25)
- F. 지혜로운 여인이 지은 집(14:1-35)
- G. 상반되는 가르침 모음집 끝(15:1-33)

지혜로운 이들은 불의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손을 부지런히 놀려 풍성한 추수를 거둬들여 아버지 기쁘게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잠언 10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불의의 재물을 구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 )를 추구하는 의인으로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 )을 주신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의 노력이 허사 일 뿐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비록 풍성한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이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허망한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 10.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잠 10:1-32)

본장은 여러 주제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입’, ‘입술’, ‘혀’, ‘말’과 관련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 )로 이어지며, 그것이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 인생의 결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 1) 지혜와 진정한 가치관(10:1-19)

[표제] “솔로몬의 잠언이라”(1a절)

## (1) 악덕과 미덕(1-5)

본 단락은 미덕과 악덕을 교차적으로 반복 언급하며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① ‘지혜로운 아들’로 표현된 의인은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며 죽음으로부터 ( )을 얻지만, ② ‘미련한 아들’, 즉 악인은 자신만을 섬기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는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상을 베풀고 악인을 징벌하시기 때문이다.

① 지혜로운 아들 → 아비를 기쁘게 함, 미련한 아들 → 어머니의 근심임

② 불의의 재물 → 무익함, 공의 → 죽음에서 건짐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란’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을 말한다. 불의하게 획득한 재물은 일시적인 안락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영원한 행복의 조건은 결코 될 수 없으며 궁극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 )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공의’는 불의하게 얻은 재물과 반대되는 것으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재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나오는 ‘공의’라는 단어는 ( )이나 자비와의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실 것임.

‘의인의 영혼’이란 지혜로운 자의 전인적인 삶을 말한다. 의인 즉 지혜로운 자는 그의 의로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으로써 영적, 육적인 삶에 결핍함이 없이 항상 ( )로울 것이란 의미이다.

④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 가난하게 됨, 손이 부지런한 자 → 부하게 됨

⑤ 여름에 거두는 자 → 지혜로운 아들임, 추수 때에 자는 자 →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임

\*\* ① 미련한 아들은 그 악한 행위로 인해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나 ②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를 통해 얻어진 영적 통찰력과 탁월한 도덕적 성품으로 부모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 (2) 말의 영향력(6-14)

10절을 중심으로 앞부분인 6-9절은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며, 11-14절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잠언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18:21)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25:15)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신을 보전한다. (14:3)

그리고 불량한 자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16:27)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거나 치유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분노에 휩싸이거나 진정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15:1). 그리고 중심에 위치한 10절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말의 영향을 먼저 언급한다.

① 대조적인 가르침: 말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6-9)

㉠ 의인의 머리 → 복이(현실적인 복) 임함, 악인의 입 → ( )을 머금음

㉡ 의인을 기념할 때 → 칭찬함(이름을 기념), 악인의 이름 → 씌어 없어지게 됨

㉢ 마음이 지혜로운 자 → ( )을 받음, 입이 미련한 자 → 멸망할 것임

㉣ 바른 길로 행하는 자 → 걸음이 ( ), 굽은 길로 행하는 자 → 드러날 것임

② 비교적인 가르침(10)

㉠ 눈짓하는 자 → 근심을 끼침, 입이 미련한 자 → 멸망할 것임(10)

\*\*\*본절은 6-9절과 11-14절을 연결하고 있다. ① '눈짓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다. 그는 공범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음모를 꾸미고자 한다. ② '입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게 떠드는 자를 말한다. 이런 사람은 이웃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눈과 입은 우리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음모를 꾸미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악을 도모하는 가해자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③ 대조적인 가르침: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11-14)

㉠ 의인의 입 → ( ), 악인의 입 → 독을 머금음

㉡ 미움 → 다툼을 일으킴, 사랑 → 모든 허물을 가림

\*\*\*미움은 잠자는 다툼을 깨우며 다툼이 일어나서 가해와 피해가 격렬하게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툼을 잠재우는 방법은 증오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증오는 상대방을 해칠 뿐 아니라 증오심을 품은 사람 자신부터 파괴한다. 미워하는 마음은 몸 속에 독소 물질을 발생시켜 각종의 질병을 유발하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침울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이러한 파괴적인 감정을 순화시키며 용서함과 더불어 마음의 ( )을 가져다준다.

㉠ 명철한 자의 입술 → 지혜가 있음, 지혜 없는 자의 등 → ( )이 있음

㉡ 지혜로운 자 → 지식을 간직, 미련한 자의 입 → 멸망에 가까움

(3) 부와 소득(15-16)

앞 단락의 내용과 연결하여 보면 부지런함(4-5)과 지혜로운 말(6-9)이 축복을 가져다 주듯이, 악한 막과 궁핍이 패망의 요인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부와 가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모은 재물은 ( )이지만, 불의한 소득은 참된 안전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며, 결국 의롭지 못한 재물과 그로 인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다.

①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임

② 의인의 수고는 ( )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룸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재물이 자신을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여기며 (28:11) 거만해지게 만든다(18:23). 그러나 재물은 허무한 것이며 (23:5) 종종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유인한다(30:8-9).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11:28). 그러나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함과 더불어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4) 생명의 길과 그릇된 길(17)

①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감

\*\*‘그릇 간다’는 것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라는 뜻으로, 징계를 배격하고 멸시하는 자는 ‘생명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5) 덕이 되는 말과 해가 되는 말(18-21)

- ①미음을 감추는 자 →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 중상하는 자 → 미련한 자
- ②말이 많은 자 → ( )을 면하기 어려움, 입술을 제어하는 자 → 지혜가 있음
- ③의인의 혀 → 순은과 같음, 악인의 마음 → 가치가 적음
- ④의인의 입술 → 여러 사람을 교육, 미련한 자 → 지식이 없어 죽음

2)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10:22-32)

본 단락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전반부(22-28)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의 관련성에 대해, 후반부(29-32)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의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 복된 삶과 심판 받는 삶(22-26)

- ①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함, ( )을 겸하여 주지 않으심
- ②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음
- ③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함,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
- ④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음

\*\*‘회오리바람’은 욥기 27:19-21에도 나오는 것처럼 ( )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심판의 회오리바람을 보내시는 날, 악인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영원한 기초’,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전성과 영구성 위에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⑤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음

\*\*게으른 자는 일을 시킨 사람에게 고통만 안겨준다. 일을 시킨 사람은 좋은 포도주를 기대했으나 게으른 사람은 신포도주(쉬어서 시게 된 포도주)나 식초처럼 치아와 잇몸에 고통만 줄 뿐이며, 좋은 불을 기대했으나 연기만 피워 눈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애만 타게 만든다.

(2) 의인의 장수와 악인의 단명(27-30)

- ①여호와를 경외 → 장수, 악인의 수명 → 짧음
- ②의인의 소망 → 즐거움을 이룸, 악인의 소망 → 끊어짐
- ③여호와 의 도 → 정직한 자에게는 ( ),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
- ④의인 → 영원히 이동되지 않음, 악인 →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됨

\*\*①여호와 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는 견고한 ( )와 참된 ( )을 누리게 되지만, ②악인에게 여호와 의 명령은 그들의 삶을 제약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의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거하

게 되지만 악인은 최종적으로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심판(약속의 땅에서의 추방)을 받게 된다.

(3)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31-32)

- ① 의인의 입 → 지혜를 냄, 패역한 혀 → 배임을 당하게 됨
- ② 악인의 입술 → 기쁘게 할 것을 앎, 악인의 입 → ( )을 말함

\*\*10장을 마무리하며 31, 32절은 의인과 악인의 열매에 대해 말한다. 의인은 지혜라는 열매를 맺어 주변을 기쁘게 하지만, 악인은 패역한(사악하고 해로운) 열매를 맺어 이웃에게 불화와 파멸을 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뿐더러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 )를 무너트린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불가피하게 된다.

성경구절	의인	악인
1절	지혜로운-아비를 기쁘게 함	미련함-어미의 ( )이 됨
3절	하나님께서 주리지 않게 하심	하나님께서 그의 소욕을 물리침
4절	부지런함 - 부하게 됨	게으름 - 가난하게 됨
9절	바른길로 행함 - 걸음이 ( )함	굽은 길로 행함 - 드러남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음
13절	명철함 - 지혜가 있음	지혜가 없음 - 채찍을 맞음
16절	의인의 수고 - ( )에 이름	악인의 소득 - 죄에 이름
17절	훈계를 지킴 - 생명길로 인도함	징계를 버림 - 그릇을 행함
19절	입술을 제어함 - 지혜가 있음	말이 많음- 허물을 면키 어려움
23절	명철함 - 지혜로 낙을 삼음	미련함 - ( )으로 낙을 삼음
28절	즐거움을 이루는 소망	소망을 끊어버림
31절	그 입술은 지혜를 냄	허가 배임을 당함

11. 선과 악에 대한 추가적인 가르침(잠 11:1-31)

앞장의 말씀은 1-9장에서 밝힌 것처럼 지혜의 최고의 선은 여호와를 경외로 정의된다. 또한 여호와 경외는 관념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실천적인 지식은 잠언서가 추구하는 이상 중의 하나이며 10-31장의 말씀은 여호와 경외에 근거한 실천적인 삶에 대한 교훈들로 구성되어 있다.

1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통해 친히 의인의 삶에 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 )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복은 역사의 현실 속에서 그 실체를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증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의인이 누리는 풍요와 평화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악인이 당하는 보응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다. 앞장에 이어 본장에서도 의와 악, 그리고 의로운 삶의 방식과 악한 삶의 방식을 대조한다. 1-8절에서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통한 구원에 대해, 9절 이후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정직하고 의로운 삶(11:1-8)

(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1절)

\*\*저울과 추는 공동체가 세운 기준이다. 공정하지 않은 거래, 불법적인 부의 축적은 공동체의 신뢰와 도덕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 )이다.

(2)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2절)

\*\*‘교만’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매사에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것은 교만과 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결과가 곧 ( )이라는 것이다.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합법적인 규제나 절차를 무시하므로 결국에는 수치스러움을 당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 )가 있다. 예수님도 잔치에 초청받을 때 끝자리에 앉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임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눅 14:11)

(3) 정직한 자의 성실 → 자기를 인도, 사악한 자의 패역 → 자기를 망하게 함

(4) 재물 → 진노의 날에 ( ), 공의 → 죽음에서 건짐

(5) 완전한 자의 공의 → 자기의 길을 굳게 함, 악한 자 → 자기의 악으로 인해 넘어짐

(6) 정직한 자의 공의 → 자기를 건짐, 사악한 자 → 자기의 악에 잡힘

(7) 악인 →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짐, 불의의 소망이 없어짐

\*\*4절의 ‘재물이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는 것과 연결되는데, 악인이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8) 의인 → 환난에서 ( )을 얻음, 악인 → 자기의 길로 감

\*\*①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의인을 그 위기에서 빼내신다는 뜻이며, ②‘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는 것은 환난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뜻이다. 결국 본절은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을 받고, 그 자리를 악인이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만과 모르드개’ 이야기(에 5:14, 7:10, 9:1-10), ‘다니엘과 사자 굴’ 이야기(단 6:23-24)이다.

2) 의인과 악인 그리고 공동체(11:9-15)

공동체를 소생시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 )에 대해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본 단락에서 나오는 ‘이웃’, ‘성읍’, ‘백성’ 등의 단어들 이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다.

(1) 악인 →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함, 의인 → 그의 지식으로 ( )을 얻음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다. 악인은 자신의 파괴적인 말로 인해 공동체를 무너트린다. 반면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데, 그들의 지식은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다. 악인이 공동체에 해를 끼쳐도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의인들을 건지실 것이다.

- (2) “의인이 행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10절)
- (3) 성읍은 정직한 자의 ( )으로 인해 진흥,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해 무너짐

\*\*의인이 행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의인의 기도는 온 도시를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 )을 조장하며 공동체를 혼란과 위험에 빠트리며 무너트린다.

- (4) 지혜 없는 자 → 이웃을 멸시, 명철한 자 → 잠잠함

\*\*‘잠잠하다’는 것은 침묵을 이야기한다. 지혜 없는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멸시하고 비웃고 모욕한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이웃의 실수 앞에서 침묵하거나, 오히려 자신을 돌아본다.

- (5) 한담하는 자 → 남의 비밀을 누설, 마음이 신실한 자 → 비밀을 숨김

\*\*‘한담하는 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을 비방하고 증상하는 자를 말한다. 그는 상대방의 아픈 비밀을 들춰내어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 )를 뿌린다. 그러나 신실한 자는 비밀을 말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덮어주고 가려준다.

- (6)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함,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림

\*\*앞의 ‘지략’은 비전을 말하며, 뒤의 지략은 ‘지도자’를 말한다. 공동체의 비전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고, 좋은 지도자가 많으면 그 공동체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다.

- (7) 보증이 되는 자 → 손해를 당함,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 → 평안함

\*\*잠언에서 보증을 경계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도 미래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증을 서기보다는 돌려받지 않을 각오로 꺾주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이다.

### 3) 선행과 악행(11:16-23)

- (1) 유덕한 여자 → ( )을 얻음, 근면한 남자 → 재물을 얻음

\*\*유덕한 여자, 즉 덕망이 있는 여자는 ( )을 얻는다. 반면, 근면한 남자(원문에서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남자를 뜻함)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지 못하고 재물만 얻을 뿐인데, 재물은 마지막 때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하는 무력한 것이다.

- (2) 인자한 자 →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함, 잔인한 자 →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함
- (3) 악인의 삶 → 허무함, 공의를 뿌린 자의 상 → 확실함
- (4)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 ( )에 이름, 악을 따르는 자 → 사망에 이름
- (5) 마음이 굽은 자 → 여호와께 미움을 받음, 행위가 온전한 자 → 여호와와의 기쁨이 됨
- (6) 악인 → 벌을 면하지 못함, 의인의 자손 → 구원을 얻음
- (7)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22절)

\*\*내면의 아름다움이 결여되었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답다 하더라도 돼지가 코에 금고리를 한 것 같을 뿐이라는 말이다.

(8)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23절)

\*\*의인이 바라는 것은 선한 것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원한다. 그러나 악인은 다른 이들에게 진노가 임하기를 바라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파멸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4) 구제하는 자가 누리는 복(11:24-28)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 소유를 나누기 어렵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내놓지 않고, 자기의 창고를 채울 생각만 한다. 그러나 구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기꺼이 나누는 자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더 큰 은총과 윤택함을 허락하신다.

- (1)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됨
- (2) 구제를 좋아하는 자 → ( )하여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 자신도 윤택해짐
- (3)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 백성에게 저주를 받음, 파는 자 → 복이 임함
- (4) 선을 구하는 자 → ( )을 얻음, 악을 더듬어 찾는 자 → 악이 임함
- (5)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28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악인의 특징이다.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재물만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 )을 거둬들이고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한다. 하나님이 그의 길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5) 심은 대로 거둬(11:29-31)

- (1)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되리라”(29절)
- (2)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30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곧 미련한 자이며 이들은 소득(유산)을 다 바람과 같이 날리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삶을 지혜로운 자들에게 맡기며 자유마저 상실한 종살이를 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의인은 ‘( )’와 같이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되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기에 사람을 얻는 자, 사람들이 따르는 자가 된다.

(3)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31절)

\*\*하나님의 보상이 때로는 더디게 올 수도 있지만, 분명 의인은 살아있는 동안 상급을 받아 평화를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죄인과 악인도 심판과 재앙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은 세상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구분	의인의 특성	악인의 특성	성경구절
기본적인 삶의 자세	정직함	( )	2.6절
이웃과의 관계	명철함	지혜가 없음	12절
영혼을 보는 관점	인자함	잔인함	17절
삶의 목표	의를 굳게 지킴	악을 따름	19절
하나님과의 관계	행위가 ( )함	마음이 패려함	20절
재물에 관한 태도	( )를 좋아함	재물을 의지함	25.28절
본래적인 성향	선을 간절히 구함	악을 더듬어 참음	27절

12. 의인과 악인의 특징(잠 12:1-28)

10장 이후부터 의인과 악인 그리고 의와 악 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10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각각의 ( )의 삶에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11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그들이 속한 ( )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던다면, 본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내면적인 특성을 말하면서 ( )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1) 흔들리지 않는 삶(12:1-3)

본장의 도입부로서 훈계나 징계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특성과 그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의인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므로 그 존재를 지속적으로 ( )받으나, 악인은 철저한 ( )과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 (1) 훈계를 좋아하는 자 → 지식을 좋아함, 징계를 싫어하는 자 → ( )과 같음
- (2) 선인 → 여호와께 은총을 받음, 악인 꾀하는 자 → 정죄하심을 받음
- (3)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3절)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굳게 서지(뿌리를 내려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탕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반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2) 삶의 태도와 운명(12:4-7)

두 종류 아내의 일반적인 특징을 대조한 후에 덕스러운 아내와 치욕스러운 아내를 각각 의인과 악인에 연결시키고 있다.

- (1) 어진 여인 → 지아비의 면류관, 욕을 끼치는 여인 →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함

\*\*“어진 여인”은 그 탁월한 성품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그 남편까지 사람들의 ( )함을 받게 한다. 반면 ‘욕을 끼치는 여인’은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남편에게 정신적, 육체적 ( )함을 불러온다. 두 아내의 대조적

인 사고방식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앙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 (2) 생각의 열매: 의인의 생각 → 정직, 악인의 도모 → 속임  
 (3) 말의 열매: 악인의 말 → 죽음, 정직한 자의 입 → ( )  
 (4) 대조적인 운명: 악인 → 소멸, 의인 → 영원히 서있음

\*\*악인의 생명은 끊어지며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에 따라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아 복된 삶을 보장받는 운명을 맞게 된다.

### 3) 선한 노동의 열매(12:8-12)

본 단락은 지혜를 지닌 자와 지혜가 결여된 자의 일반적 특성을 대조한다. 당시 삶의 현장에서 겸손, 가축을 돌보는 것, 토지를 경작하는 것 등, 맡겨진 일을 대하는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 (1) 지혜로운 자 → 칭찬을 받음, 마음이 굽은 자 → 멸시를 받음  
 (2)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찻질한 자보다 나으니라”(9절)

\*\*종을 소유할 만한 지위와 여력이 있음에도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겸허한 위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사람, 자신을 과시하는 허영심의 결말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 (3) 의인 → 자기 가축을 돌봄, 악인의 공홀 → ( )

\*\*의인은 자기가 소유한 가축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지만, ‘악인의 공홀’ 즉 그들이 하는 최상의 배려도 잔인하다는 풍자적 표현임.

- (4)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 먹을 것이 많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 지혜가 없음  
 (5) 악인 → 불의의 이익을 탐함, 의인 →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함

\*\*‘불의의 이익’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이익이다. 악인이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이익 같지만 결국 파멸로 이끌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인이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것은 열심히 ( )를 심고, 그들이 심은 의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으로, 요행을 바라지 않는 ( )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 4) 삶이 맺는 열매(12:13-14)

이 두 절은 입과 입술에 관한 것으로, 죄인의 말은 사망으로 이끌고 의인의 말은 좋은 것들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 악인은 ( )로 인해 그물에 걸리는데, 그물을 치는 자도 악인이고 그물에 걸리는 자도 악인이다. 즉, 자신이 쳐 놓은 그물에 결국 자신이 걸리고 만다는 것이다.

- (1) 악인 → 입술의 허물로 인해 그물에 걸림, 의인 → 환난에서 벗어남  
 (2)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14절)

\*\*‘복록’이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말하는 것인데, 말과 행동이 지혜와 사랑으로 절제될 때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존귀함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외적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 5) 약이 되는 말과 해가 되는 말(12:15-19)

말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내용으로 언어생활의 ( )에 대한 내용이다.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반응함으로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항상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 (1) 미련한 자 →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김, 지혜로운 자 → ( )를 들음  
 (2) 미련한 자 → 당장 ( )를 나타냄, 슬기로운 자 → 수욕을 ( )  
 (3) 진리를 말하는 자 → 의를 나타냄, 거짓 증인 → 속이는 말을 함

\*\*본절은 법정에서의 증언에 관한 언급으로 양심적인 증인은 진실을 말하며, 그 결과 공동체의 공익이 서게 된다. 그러나 위증은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이며 공익을 무너트린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 (4)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18절)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세상에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상처를 치료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 (5) 진실한 입술 → ( )됨, 거짓 혀 → 잠시 동안만 있을 뿐

\*\*진실은 영원하지만 거짓은 존속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 때문이다. 본 단락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며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 6) 기쁨이 깃드는 삶(12:20-23)

전 단락의 말씀들과 유사하게 먼저, 사람의 내면적 성향을 언급하고,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며,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주권적 개입을 말하고 있다.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며, 그 결과도 달라진다.

- (1) 악을 피하는 자 → 마음에 속임이 있음, 화평을 의논하는 자 → ( )이 있음  
 (2) 의인 →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음, 악인 → 양화가 가득할 것임  
 (3) 거짓 입술 → 여호와께 미움을 받음, 진실하게 행하는 자 → 그의 기뻐하심을 받음

(4)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23절)

\*\*‘지식을 감춘다’는 것은 겸손을 말한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 낸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만을 초래할 뿐이다.

7)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12:24-28)

부지런함은 성공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비결이다. 본 단락은 ( )의 덕목을 장려하며 부지런함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 (1) 부지런한 자의 손 → 사람을 다스리게 됨, 게으른 자 → 부림을 받음
- (2)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25절)

\*\*근심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극도의 고뇌를 말한다.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요동치는 풍랑처럼,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뒤틀리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나 ‘선한 말’, 사려 깊은 위로의 말은 격려와 소망으로 새로운 의욕과 활력을 불러온다.

- (3) 의인 → 이웃의 인도자가 됨, 악인의 소행 → 자신을 미혹함
- (4) 게으른 자 →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음, 사람의 부귀 → 부지런한 것에 있음
- (5)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28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뿐 사망이 없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비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수욕을 참는다 (16절)	마음의 미련한 것을 드러냄 (23, 13, 16절)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다, (23절)	지식이 없다.
지식으로 행한다	지식을 미워한다.
자기의 길을 아는 지혜가 있다	일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행동을 삼간다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행악을 낙을 삼는다
아비의 훈계를 잘 받는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긴다.
말을 아낀다	입으로 미련한 것을 쏟는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분노를 당장에 드러낸다.
재앙을 보면 숨는다.	안일하다.